

“기존 캐릭터 작품 제작 힘들었지만 해외서 박수 받으니 더 뿌듯합니다”

문화전당 어린이 뮤지컬 '트레저 헌터스' 아부다비 공연 연출 김영원씨

전통 결합한 비보이 공연 등 기획
‘유니와 영어요정’ 흥행 1위 기록도
“어린이 영어 뮤직비디오 만들 것”



중에서도 영어 뮤지컬 분야는 취약하다. 학습지 등이 프로모션을 위해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유니와 영어요정’ 이니 미니 마이니 모’는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집계하는 공연예술통합대상망(KOPIS) 월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문화전당과의 작업을 이어준 것도 바로 이 영어 뮤지컬이었다. 영어 뮤지컬 연출의 명성을 들은 전당 관계자에게서 김씨에게 제안이 왔고 함께 전당의 주요 캐릭터를 활용한 뮤지컬 제작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문화전당에서 첫선을 보인 ‘트레저 헌터스’는 시아와 아시아를 상징하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린 영어 교육뮤지컬이다. 김씨는 대본과 연출을 맡았고 삽입곡의 가사도 직접 썼다.

“아예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들과 시놉스를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하는 건 훨씬 어렵죠. 다행히 국내 공연에서는 물론이고 이번 아부다비 공연에서도 주인공 시아를 응원하기 위해 현재 아이들이 ‘유 캔 두 잇’ 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어요.”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과 아랍에미리트 문화기술개발부 주최로 진행된 이날 아부다비 공연에는 5세부터 중학생까지 1200여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문화전당은 ‘트레저 헌터스’를 기회가 닿는 대로 해외에 유통시킬 생각이다.

김씨는 현재 또 다른 시도를 진행중이다. 어린이 뮤지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네이버 V앱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다. 영어로 동화를 읽어주고 케이팝 같은 편곡으로 동화의 주제를 살리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주색 한복을 입은 귀여운 소녀 ‘시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대표 캐릭터다. 시아는 고니(뽀), 칼리(자칼), 엘리(코끼리), 키니(원숭이) 등 친구들과 함께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어린이들을 만났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트레저 헌터스-시아와 친구들’을 통해서다. 이번 작품은 지난달 25일부터 한달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극장 등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에 ‘난타’ 등과 함께 초대됐다.

이 작품의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김영원(48)씨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온 베테랑 기획자다. 비보이와 전통의 만남을 시도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영어뮤지컬을 제작하며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

엔넷 공채 VJ 출신인 김씨는 1999년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당시 생소했던 ‘힙합’과 만나게 된다. 힙합은 단순한 음악만이 아니라 그래피티 등 회화, 디제잉, 랩, 비보이가 다 어우러진 복합 문화 장르다. 당시 독일 등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행사에서 우승하며 한창 이름을 알리던 비보이들의 연희 방식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당시는 난타 공연의 대명사인 ‘난타’는 이미 귀도에 울랐고, 무술을 소재로 한 ‘점프’가 인기를 끌 무렵이었다. 비보이 동생들과 먹고 자면서 친해진 그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없는 ‘난타’로 비보이들의 작업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

2005년 기획자로 참가해 제작한 작품이 ‘프리즈’다. 전통가락과 비보이의 결합을 생각한 그의 제안에 따라 비보이들은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곡 ‘미궁’에 맞춰 춤을 췄다.

“공연계 특성 상 30여차례 공연이 만석이었지만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때 기획의 매력에 알게 됐죠. 무엇보다 머리속에서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을 구현시킨 데 희열을 느꼈어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전통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죠.”

2011년에는 전통과 힙합이 어우러진 ‘비빔 IN seoul’ 공연에 제작자, 연출자로 참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100회 넘게 공연된 이 작품은 비보이와 땅재주꾼, 랩과 판소리, 디제잉과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3년 김씨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연극, 미술, 음악, 선생들과 함께 영어원과 유아원 등 소외 시설을 찾다니 그는 포항의 한 유아원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예술버스로 온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 많은 언니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죠. 몸으로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게 대목이 있었는데 따돌림을 당한 그 아이가 끼를 발휘하며 정말 멋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본 언니들이 깜짝 놀라며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며, 이게 문화의 힘인가 싶었죠.”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김씨는 오래 전 습적으로 써 두었던 영어 뮤지컬 대본을 다시 꺼내들었고 그 결과물이 지난해 국립극장에서 공연돼 화제를 모았던 ‘유니와 영어요정 이니 미니 마이니 모’다. 어린이 공연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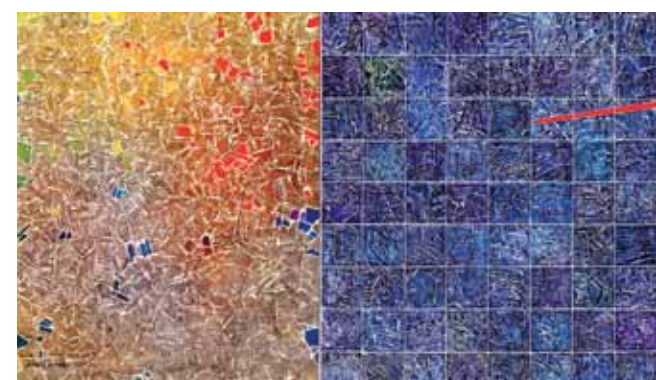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어린이영어뮤지컬 '트레저 헌터스'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 공연됐다.

광주 한울회·부산 형맥회 대작 교류전

30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장지환 작 '사유의 흔적'

광주와 부산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의 한울회(회장 장지환)와 부산 형맥회(회장 김지영) 대작 교류전이 오는 3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울회가 기획한 행사다.

한울회 회원인 김기수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물결이 인상적인 ‘만경창파’를 수채화로 선

보이며 김재일 작가는 시원한 폭포의 모습을 그린 수묵담채 ‘오색수락’을 전시한다.

그밖에 김충근·김필수·노의웅·양원철·유태환·이정래·장복수·정성복·정흥기 작가 등 모두 2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부산의 중견 작가들로 구성된 ‘형맥회’에서는 강명순·김기남·김지영·김종진·노재환·류승선·박성만 작가 등 모두 1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선·후·인’ 초대전



김은아 작 '화 일상의 조각들'

12월10일까지

‘화’ 주제 30점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하정웅미술관 2017 미술단체 초대전 ‘선·후·인·화’전을 하정웅미술관에서 오는 12월10일까지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지역미술단체 활성화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초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2017년에는 여성미술그룹 ‘선·후·인’을 선정했다.

선·후·인은 1989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동문들이 결성한 여성미술그룹으로, 매년 테마를 선정해 현장답사 및 스케치를 진행하

고 있다. 올해 전시는 선·후·인의 43번째 전시이다.

2011년 섬진강, 2012년 무등산, 2014년 영산강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으며 이번 전시의 주제는 ‘화’다. ‘화’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불(火), 꽃(花), 재앙(禍), 소용(術), 말(話), 그림(畫)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김수옥, 김은아, 김정희, 범미희, 박수옥, 윤윤덕, 이미경, 이영민, 한미경씨가 화화, 설치, 영상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포럼 29일 DJ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에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그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기조강연은 ‘문화 다양성과 문화 공존, 그리고 문화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 일본 도시사대학 교수가 맡는다.

포럼 1부는 김명중 호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동아시아 정체성의 재발견 : 한중일 문화도시 사례발표’로 진행된다.

발제는 ‘한국 청주시 정가락축제’(변광섭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콘텐츠진흥팀장), ‘중국 취안

저우시 문화계승과 도시 이미지 제고’(쉬자오가이 취안저우시 도서관장) 등이다. 토론은 최동희 광주대 교수, 김선정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등이 참여한다.

2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협력과 세 전환’을 주제로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사회로 진행된다. 차오 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회문화부장이 ‘한중일 3국 협력과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언용 광주국제교류센터 연구위원,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11-2427.

발제는 ‘한국 청주시 정가락축제’(변광섭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콘텐츠진흥팀장), ‘중국 취안저우시 문화계승과 도시 이미지 제고’(쉬자오가이 취안저우시 도서관장) 등이다. 토론은 최동희 광주대 교수, 김선정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등이 참여한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증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